

분과발표_철학 1

학문과 신앙 그리고 기독교 대학 - 헨드릭 반 리센의 사상을 중심으로 -

최용준 (한동대학교 교수)

논문요약

본 논문은 네덜란드의 기독교 철학자였던 헨드릭 반 리센의 사상에 있어 학문과 신앙 그리고 기독교 대학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반 리센은 블렌호벤 교수의 뒤를 이어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철학 교수가 되어 학문과 신앙의 통합, 기독교 기술 철학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쳤다. 나아가 그는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세속 대학과 기독교 대학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 인지를 밝히고 나아가 진정한 기독교 대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카이퍼의 유산을 이어 받아 교회, 정부 및 대학의 영역 주권도 강조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현대 한국 상황에 적용, 평가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학문, 신앙, 자유주의적 대학, 기독교 대학, 영적 대립

I. 서론

전 세계에는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세워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 대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그 기독교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속화되고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왜 그런가? 그리고 기독교 대학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의 한 기독교 철학자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그는 헨드릭 반 리센(Hendrik Van Riessen, 1911-2000)인데, 이는 그가 나름대로 이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였고 그 결과가 출판되었기 때문이며(Hendrik Van Riessen, 1997) 필자가 볼 때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반 리센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다. 그는 1911년 네덜란드 북홀란드주 블룸엔달(Bloemendaal)에 있는 한 경건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자라면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향을 받아 신앙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성경적 관점을 갖게 되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도와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두뇌가 명석하고 기억력이 탁월하여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Vlot en Griffioen, 2000: 121-125).

그는 1932년부터 델프트(Delft) 공대에서 공학을 공부했는데 그곳에서의 교육이 단지 엔지니어로 교육시키고 기독교 신앙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배울 수 없는 것에 대해 실망했다. 그러다 2학년 때 그곳에서 기독교 철학을 강의하던 볼렌호벤(D. H. Th. Vollenhoven) 교수로부터 큰 감동과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다. 1936년 졸업 후 바로 벨기에의 안트베르펜(Antwerpen)에 있던 벨 전화기 회사에서 1943년까지 일하면서 1940년부터 기독교 철학 강의를 시작했다. 부족한 강의였지만 당시 볼렌호벤과 함께 기독교 철학자로 쌍벽을 이루던 도여베르트(Herman Dooyeweerd) 교수가 격려해 주면서 박사 과정에 들어올 것을 권면하여 나중에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였는데 특히 볼렌호벤 교수로부터 많이 배웠다. 학위 논문을 쓰고 있을 당시 이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여 독일의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하자 즉시 저항 운동에 가담했다가 1944년 2월에 독일군에게 체포되어 총살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극적으로 벗어났다(Vlot en Griffioen, 2000: 121).

1949년에 그는 자유대학교에서 철학과 기술에 대한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마쳤다(Van Riessen, 1949). 그는 카이퍼, 도여베르트 및 볼렌호벤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적 관점에서 기술 철학을 본격적으로 연구, 발전시킨 최초의 기독교 철학자로서 현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기술도 결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문화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 후 그는 1951년부터 1974년까지 칼빈주의 철학협회에서 개설한 특별 석좌 교수로 처음 임명되어 델프트 공대에서 강의를 시작한 후 1961년에서 64년까지 아인트호벤(Eindhoven) 공대, 브레다(Breda)의 왕립 육군 사관학교에서도 철학을 강의했다. 1963년 볼렌호벤이 은퇴하자 그를 이어 자유대학교에서 일반 조직 철학 및 문화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는 포프마(K.J. Popma), 자우데마(S.U. Zuidema) 그리고 메케스(J.P.A. Mekkes)와 함께 네덜란드의 기독교 철학 제 2세대를 형성한 학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반 리센은 그 후 점차적으로 학문과 신앙 그리고 기술문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1967년 자유대학교 교수 취임 강연에서 그는 현대인의 무기력성을 분석하면서 서양 문화가 인간에게 학문과 기술을 통해 엄청난 힘을 가져다주었으나 정작 인간은 폐쇄된 세계관으로 인해 세속화되어 오히려 허무감에 빠졌다고 주장한다(Van Riessen, 1967). 나아가 이러한 세속화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는 그리스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철학 및 학문관에 있는데 이를 이어받아 인간의 자율성에 기초한 학문을 강조하던 계몽주의는 처음에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인간에게 엄청난 권력을 주어 심지어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까지 선언했으나 결국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인간의 소외를 낳게 되었고 인간을 더 무력하게 만드는 부메랑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Van Riessen, 1981: 5-6). 1974년 델프트 공대에서의 은퇴 강연에서도 그는 기독교 철학이란 본질적으로 학문적 사고와 신앙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확신에 의해 조건 지워진다고 주장했다(Van Riessen, 1974).

이렇게 그는 문화철학자로서 현대 기술 구조에 관해 매우 통찰력 있고 예리한 분석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동시에 학문과 신앙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여 여러 논문들과 소책자들을 발표, 출판하다가 마침내 『미래의 사회』(*De maatschappij der toekomst*)라는 저서를 종합적인 연구 결과물로 출판했다(Van Riessen, 1973). 본서에서 그는 학문에 기초한 조직과 계획이 지배적인 현대 사회의 구조가 인간의 자유로운 책임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권위와 자유의 균형과 영역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본다(Van Riessen, 1981: 4). 나아가 그는 1981년에 ‘어떻게 학문이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자유대학교 교수 은퇴 기념 강연을 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학문이야말로 근대 기술을 발전시킨 원동력인 동시에 20세기의 위기를 초래한 주원인으로 보았다(Van Riessen, 1981: 4).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문은 결코 자율적이거나 독립적이 아니라 철저히 신앙적 전제에 의존하며 따라서 기독교 대학은 암스테르담에 자유대학교를 설립한 아브라함 카이퍼가 품었던 비전대로 성경적 원리를 각 학문 분야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하여 기독교적 학문을 발전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Van Riessen, 1981: 23).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그는 학문과 신앙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였으며 나아가 대학이 세속화된 과정과 기독교 대학의 기초 및 궁극적 사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본고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그의 사상을 고찰하는 동시에 나름대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반 리센의 학문관

반 리센은 현대의 문화와 기술이 학문에 의해 가장 강력히 지배되고 있다고 보았기에 학문의 본질과 구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그는 학문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 또는 질서를 밝히는 이성적인 작업이라고 주장하면서 학문의 발전단계를 숲 속을 거니는 산책에 비유한다. 즉 숲에 대한 경이감에 이어 그 속에 나타난 다양한 법과 질서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으로 설명한다(Van Riessen, 1970: 80). 즉 지식의 획득은 창조 세계라는 숲 속에 담긴 다양한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선택,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 법칙들을 발견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은 계속해서 비판적 반성을 통해 재검토되므로 진정한 지식은 단지 사실들이 아니라 그 사실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며 이러한 지식이 체계화될 때 개별 학문이 성립되는 것으로 그는 본다(Van Riessen, 1997: 48).

좀 더 구체적으로 반 리센은 이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는데 법과 질서를 발견함에 있어 먼저 심리적이고 감각적인 요소(숲에 대한 경이와 감탄)와 분석적 요소(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태도)가 분리된 후,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면서 구체적이면서 사실적인 지식과, 실제적인 지식 그리고 학문적 지식이 획득되며, 마지막으로 그 학문적 지식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Van Riessen, 1970: 81-83).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단지 학문적 지식을 획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방향성까지도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반 리센은 학문과 대조되는 경험에 대해서도 예리하게 분석한다. 경험은 매우 독특하며, 현실을 전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수용하므로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동시에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현실 참여적이고, 필연적이 아니라 우연적이라고 말한다(Van Riessen, 1970: 84-85). 반면에 학문은 이러한 경험에서 더 나아가 단순한 경이감(사과가 떨어지

네!)과 호기심(사과는 왜 떨어질까?)에서 학문적 지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사과는 반드시 떨어져야 하는가?)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연구하여 하나의 학문적 지식(만유인력의 법칙)을 얻게 되는 것이다(Van Riessen, 1970: 85). 따라서 학문적 지식은 보편적이고 확실하며 필수적이고 현실과 거리를 두고 독립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험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Van Riessen, 1970: 85-86). 가령 ‘비’는 하나의 현실이다. ‘비가 온다’는 것은 하나의 실제적 지식으로서의 경험이다. 그러나 ‘비는 식물의 성장에 필요하다’는 것은 학문적 주장이라는 것이다(Van Riessen, 1970: 93).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학문의 세 가지 특성을 언급한다. 첫째로 학문이란 ‘체계(system)’이며 나아가 새로운 발견에 ‘개방된 체계(open system)’이고 둘째로 학문적 이론의 기초는 ‘가설(hypothesis)’로서 학자는 이것으로 현상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결국 인간의 경험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법 또는 질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문은 ‘필연성(necessity)’이 있다. 필연성이 없으면 학문적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반 리센은 앞선 모든 논의들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학문은 지식을 추구한다.

지식은 경험에서 나오며

지식은 연구와 연구를 통해 얻은 데이터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획득된다.

이러한 분석은 가정들 및

분석과 추상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학문이란 하나의 양상 안에 관련된 지식이며

체계적인 정합성을 가져야 하고

그러한 근거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현실에 대한 법칙들로서

결국 언어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칙들은 보편적으로 유효해야 한다(Van Riessen, 1970: 97-98).

반 리센은 학문이 낳은 이러한 지식은 지속적인 형태를 가지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볼 때 권력으로도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학문을 응용한 기술은 현실에 대한 지배력을 증대시키고 따라서 인간이 미래를 더 통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학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학문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다른 권력에 의해 제한된다면 올바른 학문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Van Riessen, 1973: 146-152).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는 실제 삶에서 학문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미래 사회에 가장 불안한 징후라고 지적하면서 학문에 대한 지나친 기대에 대해 경고한다(Van Riessen, 1973: 153). 다시 말해 학문의 응용에 대해서는 언제나 인간의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Blokhuys, 1981: 14-16).

2. 반 리센의 학문과 신앙관

반 리센은 학문이 발견한 법 또는 질서를 하나님의 계시라고 설명함으로써 학문이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한다. 물론 이 계시는 성경에 나타난 특별 계시와 피조계에서 드러나는 일반 계시 둘 다 포함한다. 학문이란 이 계시에 대해 인간이 이성을 통해 직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가능해지고(Van Riessen, 1981: 26) 이 인식은 언어에 의해 표현되며 따라서 학문은 언어로 나타나게 된다(Van Riessen, 1981: 17). 언어가 없다면 개념 정립도, 따라서 학문 활동도 불가능할 것이다.

동시에 주목할 점은 그가 성령의 역할도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는 사실이다(Van Riessen, 1981: 24-25). 성령은 진리의 영이므로 인간 영혼에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피조계에 숨은 질서들을 발견해 낼 뿐만 아니라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 리센에게 있어 학문에는 신앙적 요소가 매우 중요해진다. 즉 신앙이란 인간의 행동을 인도하며, 영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학문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핵심 논제는 학문이 결코 중립적이거나 자율적이지 않으며 신앙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는 그의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학문의 중립성 및 독립성이라는 이념 자체가 종교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비록 많은 학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신앙은 단지 각 학자들의 신앙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세계관이며 시대정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은 학문 전체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Van Riessen, 1997: 2).

따라서 모든 기독교 학자들은 이 학문과 신앙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하며 나아가 이 신앙이 어떻게 학문함을 인도해 나가야 할지 이해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동시에 자신이 다른 세계관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지도 조심스럽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학문이 계시 및 전이론적 직관에 의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학문의 자율성이라는 잘못된 신앙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Van Riessen, 1981: 26-27).

3. 반 리센의 철학관

그렇다면 반 리센이 보는 철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는 도여베르트나 블렌호벤과 같이 철학이란 근본적으로 참된 지혜를 추구하며 모든 한계적 또는 궁극적 질문들을 다루는 동시에(Van Riessen, 1970: 12), 개별 학문들을 연결하고 포괄하는 학문적 고리로 이해하면서 이 철학은 마치 저수지와 같아서 그 수문을 여는 순간 각 학문들의 모든 기본 질문들이 나온다고 본다(Van Riessen, 1997: 3).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문의 전제, 즉 학문 활동과 신앙의 관계임을 다시금 강조한다. 그리고 이 학문과 철학이 신앙에 의존하는 방식에 대해 그는 주목한다. 그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종교적 신앙은 뿌리에, 철학은 줄기 그리고 개별 학문은 가지라고 설명한다(Van Riessen, 1970: 27-28). 도여베르트도 이것을 자신의 선형적 비판 철학 (Philosophy of transcendental critique)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Dooyeweerd, 1935-36, 1953-58) 반 리센은 도여베르트의 선형적

비판 철학 방법론에 대해 어느 정도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Van Riessen, 1970: 109-139) 철학이 자충족적이 아니며 종교에 의존한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따라서 그도 학문과 신앙은 불가분리적이며 양자의 통합이야말로 기독교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요 주제로 본다고 말할 수 있다.

4. 반 리센의 대학관

그렇다면 반 리센은 대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는 대학이 단지 직장을 갖기 위한 준비 장소라거나 학문적 탐구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학문을 훈련하는 곳’으로 본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는 학문(science)과 훈련(training)이다. 그리고 여기서 훈련이란 개인적 훈련이 아니라 협력하는 훈련(joint training)이며 이 협력은 주로 교수들과 학생들 간의 협력을 의미한다(Van Riessen, 1997: 3-4).

대학은 특히 이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며 이들의 학문적 훈련이야말로 대학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반 리센은 강조한다(Van Riessen, 1997: 4). 여기서 그가 대학의 ‘교육(education)’보다 ‘훈련(training)’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교수의 가르침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자가 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대학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수의 역할은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하여 교수와 같은 수준의 학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따라서 학문의 훈련은 단지 첨단 지식의 전수만이 아니라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학문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대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그는 본다.

그렇다면 훈련과 연구(investigation)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반 리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고 수준의 지성적 훈련은 연구를 포함하는 역동적 지식 추구과정이다.”(Van Riessen, 1997: 5) 즉 양자 간의 균형을 강조하는데 만일 훈련만 강조한다면 새로운 학문의 발전이 불가능할 것이며, 연구를 너무 강조한다면 대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학생들이 관심의 대상 밖으로 밀려나게 되어 대학은 결국 연구소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대학에서는 어떤 문제들을 연구 및 훈련의 주제로 다루어야 하는가? 반 리센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동시에 특수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Van Riessen, 1997: 6). 즉 보편성과 특수성 모두에 능숙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보다 철저히 철학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이슈와 씨름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이고 보편적 주제를 다루는 철학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볼 줄 아는, 미시적인 동시에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현실 전체를 보는 철학적 훈련이 대학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반 리센은 주장한다. 이와 동시에 개별 학문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전체적인 학문인 철학적 훈련을 한 후에 각 개별 학문이 전체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의 문화 또는 문명 발전에 진정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아브라함 카이퍼와 같이 반 리센도 학문의 영역에 영적 대립(antithesis)이 있음을 지적한다(Van Riessen, 1997: 11). 즉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적인 학문과 인간 중심적

이고 세속적인 학문은 상호 화합할 수 없는 대립성이 있다는 것이다. 후자 즉 세속 학문 또한 엄격한 면에서 종교적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앞서 언급한 인간의 '자율성 (autonomy)'이다. 여기서 그는 이미 기독교 대학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다.

또한 주목할 점은 학문의 발전에 있어 대학의 공동체성이 매우 중요함을 반 리센이 강조한다는 것이다. 가령 학부 학생들은 지도 교수의 학문적 가르침 못지않게 영적인 입장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속 대학에서는 기독교 학생들이 자칫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그는 경고한다(Van Riessen, 1997: 12). 요컨대 반 리센은 대학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Van Riessen, 1997: 12-13):

- 1) 대학은 학문을 연마하는 곳이다.
- 2) 이 훈련은 배우는 공동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 3) 대학에서 훈련하는 대상은 학생들이다.
- 4) 탐구 및 리서치는 이러한 훈련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함이다.
- 5) 학생들의 지성을 훈련시키는 목적은 학문의 도구들을 마스터할 현명한 교양인(a wise man or woman of culture)을 배출하기 위함이다.
- 6) 이를 목적으로 하는 학문에 대한 접근은 보편적인 동시에 특수해야 한다.
- 7) 대학의 외적 목적은 전문 직업을 위한 훈련과 함께 사회에서 일반적 리더십을 발휘할 훈련을 쌓는 것이다.
- 8) 대학에서의 학업은 방향성이 있다. 이것은 대학, 학부 또는 개 교수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5. 대학의 변질

위의 기준을 가지고 현대의 대학들을 진단해본 결과 반 리센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면에서 변질되었다고 예리하게 지적한다(Van Riessen, 1997: 14):

- 1) 배움의 공동체가 하나의 조직으로 대체되었다.
- 2) 학문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이 전문화(specialization)로 대체되었다.
- 3) 학문의 자유로운 특성이 실용적인 지식 및/또는 정보를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현대 과학과 사회의 발전이 낳은 산물이라고 그는 분석한다(Van Riessen, 1973). 즉 지나친 전문화에 대한 강조로 말미암아 대학에서의 보편적 학문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지난 2세기 동안 과학 기술의 발달로 학문의 세분화가 가속화되었으며 이것이 현대 사회에 가장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대학은 이제 교회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 점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신앙적 설명보다 과학적 설명이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과 대학은 오히려 독립성을 상실했다고 반 리센은 진단한다. 즉 사회와 정부가 규정하는 방식대로 움직이는 대학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학과 학문 세계에도 진리가 실제적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실용주의(pragmatism)가 판을 치게 되었다고 그는 예리하게 비판한다(Van Riessen, 1997: 15). 이러한 지적은 매우 공감되며 우리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시민들의 전체적으로 향상된 생활수준 또한 대학이 사회를 향해 문을 더 활짝 열게 된 요인이었다고 그는 지적한다(Van Riessen, 1997: 15). 즉 대학을 졸업해야만 좀 더 좋은 직장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며 풍요하면서도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의식이 보편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 교육은 대중화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대학 졸업장을 갖기 원하며 그 목표는 결국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인들 및 행정 인력들을 대량 생산하는 하나의 공장이 되고 말았다고 본다.

요컨대 전문화, 사회에 대한 실용적 관계 그리고 대중 교육이 현대 대학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 반 리센은 본다. 하지만 그 결과 대학의 공동체성이 상실되었고 학문의 일반성은 무시되기 시작했으며 학문의 자유는 시간 낭비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대학은 교양 있는 남녀를 배출하는 곳이 아니며 대학의 이러한 변질은 불가피하므로 애석하게 생각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물질주의적 세계관의 산물이라고 그는 보는데 다시 말해 영적 차원이 그 배후에 있음을 암시한다. 즉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신앙적 뿌리, 즉 물질적이며 결정론적 세계관 및 운명론적 대학관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Van Riessen, 1997: 16).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다음 세 논제로 요약하고 있다(Van Riessen, 1997: 17-18):

- 1) 대학의 퇴보는 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서구 문명의 영적 지표에 기인한다.
- 2) 비록 사회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할지라도 그 변화는 주로 현대 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영적 상태에 주로 의존한다.
- 3) 대학에 미치는 신앙의 영향은 반드시 외부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대학은 항상 시대의 영적 상황을 형성하는 리더 역할을 해왔다. 이것은 특히 20세기에 더 그랬다.

따라서 반 리센은 현대를 영적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위기의 시대로 분석하면서 현대의 대학이 기독교 대학의 이상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이 두 종류의 대학의 기저에는 화해할 수 없는 영적 대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추구하는 기독교 대학의 형성 및 발전을 논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학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실패 요인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그는 먼저 대학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간단히 고찰하고 있다.

6. 대학의 역사

1) 대학의 기원

서양의 역사에서 주후 천년까지의 학문 활동은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으로 수도원

등지에서 주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교부들의 문헌을 재해석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학문의 발전에 새롭고 독창적인 공헌을 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11세기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에 대한 이슬람의 공헌도 중요했다고 반 리센은 본다(Van Riessen, 1997: 19).

또한 학문의 시작인 새로운 호기심이 부활하면서 학자들에게 학생들이 몰려들어 정식 대학들이 설립되었는데 당시 대학에서 공부하는 목적은 주로 교양을 갖춘 문화인이 되기에 필요한 백과사전적인 학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함이었다(Van Riessen, 1997: 20).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과목들은 문법, 논리학 및 수사학을 뜻하는 삼학(三學, trivium) 및 기하학, 산술학, 천문학 및 음악을 포함하는 사과(四科, quadrivium)였으며 그 후에야 신학과 철학을 공부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란 학자들과 학생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로서 교회나 국가가 어떤 간섭도 하지 않는 일종의 길드 조직이었다.

2) 대학의 주권

하지만 대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외부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주로 그 지역의 영주 또는 황제로부터 왔다. 그러면서 대학이 서서히 국가의 간섭 하에 놓이게 되어 가령 교수 임용에 정부가 관여하게 되었다. 한편 교회도 그 산하에 있는 대학의 모든 행정 및 교육을 통제하기 시작하여 대학의 독립적인 주권은 침해받게 되었다.

그러나 반 리센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론을 인용하면서 교회나 정부가 결코 대학의 정책에 간섭하거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Van Riessen, 1997: 21-22). 즉 교회, 정부 및 대학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영역에 주권을 위임받았으므로 그 범위 내에 머물러야지 그 경계를 넘어 다른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 가령 교회가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를 억압함으로써 진정한 학문의 발달을 저해했던 것이다(Van Riessen, 1997: 22-23).

3) 대학의 세속화

대학은 교회와 국가 다음으로 중세부터 서양에 나타난 제 3의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실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학문과 탐구를 통해 교회로부터 독립하여 올바른 지식을 얻고자 하는 대학의 등장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기에 반 리센은 이것을 긍정적 의미의 '세속화(secularization)'라고 부른다(Van Riessen, 1997: 24). 즉 대학이 교회로부터 점차 독립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의 세속화는 종교적 함의를 띠면서 점진적으로 교회의 경쟁자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그는 본다. 즉, 교회로부터 독립하면서 학문을 신앙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반 리센은 도여베르트가 중세의 사상과 문화를 지배한 종교적 근본 동인이라고 말했던 자연 및 초자연(은총)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구도로 설명한다(Dooyeweerd, 1949: 33-37). 즉 이 세상을 은총의 영역과 자연 영역으로 나누고 교회는 전자를 지배하는 반면 국가와 대학은 후자에 관여한다고 본다. 자연의 세계는 자연법에 의해 자율적으로 지배되며 여기에는 인간의 이성이 주된 역할을 한다. 이 영역은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필요 없으며 따라서 이 영역은 교회, 신앙 및 은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이 이러한 자율성을 갖게 된 것이 결국

학문의 세속화를 낳게 되었고 바로 이것이 현대 대학의 위기에 대한 반 리센의 근원적 진단이다(Van Riessen, 1997: 26).

중세 시대에 자연과 초자연 또는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통해 균형을 이루고자 한 대표적인 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다. 그는 양자가 각기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는 후자로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고 봄으로써 양자 간의 타협을 시도했는데 이는 곧 기독교 세계관과 그리스 철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종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이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듯하면서 실제로는 세속적인 일들과 지적인 영역에도 간섭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자연 영역에 자율성을 인정한 것은 결국 대학이 세속화되는 근거를 제공했으며 나아가 자연과 초자연을 종합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대학이 결국 교회와 정부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종속되는 오류를 범했다고 반 리센은 날카롭게 지적한다(Van Riessen, 1997: 27).

여기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연과 은총을 종합하려고 시도한 중세에 대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사람들은 영원에 대한 관심 외에 이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것을 문화 또한 자연의 영역으로 보고 고대 그리스 사상에 대해 새롭게 연구하면서 이를 ‘르네상스’로 부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반 리센은 기독교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Erasmus)도 비판한다. 즉 그가 교회에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의 은총을 믿고 고백했지만 세상으로 나오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을 인정하는 이원론적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Van Riessen, 1997: 31). 결국 르네상스는 대학의 세속화를 가속화했다고 반 리센은 본다. 즉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대학에 침투하게 되었고 대학의 목적은 이제 고대 그리스 고전을 통해 이성의 자율성을 믿는 세계관에 입각하여 독립성과 존엄성을 갖춘 문화인을 배출하는 것으로 변한 것이다.

결국 기독교와 인문주의란 근본 출발점이 다르기에 물과 기름처럼 상호 양립할 수 없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차세보다 현세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인본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기게 되었고 교양 있고 학문을 한 엘리트들은 더욱 교회와 멀어지면서 인본주의자가 되었다고 반 리센은 주장한다(H. Van Riessen, 1997: 32).

4) 대학의 배신

그 후 대학의 영향력은 더욱 증가하여 19세기에 와서는 교회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성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현대 문명의 발전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대학의 공헌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 리센은 말한다. 즉 긍정적인 면에서 대학은 인간의 복지 증진, 민주주의의 발전 등에 공헌했지만 부정적인 면으로는 프랑스 혁명처럼 신앙을 부정하며 교회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Van Riessen, 1997: 27).

그 결과 현대의 대학은 무신론과 허무주의의 산실인 동시에 그 희생물이 되었다고 반 리센은 진단하는데 그 이유는 지식의 권력화와 문명화된 인간의 개인적 권력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Van Riessen, 1997: 28). 이것은 헤르만 도여베르트가 지적한 근대 서구 사상 및 문명의 종교적 근본 동인인 자연-자유 동인과 일맥상통하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Dooyeweerd, 1980: 45-51). 즉 과학 및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의 자유가 더 보장되고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인간의 정신 활동도 자연과학적 인과율에 의해 제한되면서 인격적 자유가 설 땅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대학도 현대의 모든 문제들을 학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나 오히려 그 희생물이 되고 말았고 따라서 현대인들의 기대를 배신했다는 말이다. 나아가 반 리센은 자연 과학의 팔목할 만한 발전이 결국 인문/사회 과학도 지배하게 되어 각 학문의 고유한 영역이 인정되지 못하고 다양한 환원주의를 낳게 되었으며 결국 대학의 목표인 교양 있는 문화인 배양도 실패했다고 본다.

5) 대학의 개혁

이에 대해 반 리센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렇게 세속화되어가던 대학들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상기시키면서 독일의 라이프치히 대학, 예나 대학, 하이델베르크 대학, 쾰닉스베르크 대학, 스위스의 바젤 대학, 제네바 대학 및 네덜란드의 레이든 대학 등을 예로 든다(Van Riessen, 1997: 33). 하지만 이러한 대학들이 시대사조를 거슬러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신학뿐만 아니라 새로운 철학도 동시에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전 분야에도 중립적이고 자율적인 학문관을 배격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다.

따라서 처음에 개혁주의자들은 인문주의자들과 힘을 합쳐 가톨릭의 스콜라주의를 배격했으나 나중에 인문주의자들의 종교적 동인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이들의 사상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만큼은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고 반 리센은 본다(Van Riessen, 1997: 34).

한 예로 그는 레이든 대학교의 경우를 자세히 설명한다.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세워진 이 대학교는 스페인 필립 2세의 학정에 대해 80년 동안 계속된 독립 전쟁이 승리로 끝난 후 시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윌리엄 1세에 의해 1574년에 칼빈주의적 개혁 정신을 따르는 대학으로 설립되었다. 이 대학은 당시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필요로 하던 목회자들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필요한 공무원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도 염두에 두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의 유명한 연설 '칼빈주의'에서 이 사실이야말로 개혁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학문을 무시하지 않고 신앙과 통합해야 함을 잘 보여 주는 역사적 증거로 들고 있다(Kuyper, 1931: 110-112).

하지만 이 대학은 그 이후 정체성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였는데 반 리센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한다(Van Riessen, 1997: 37-39). 우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학문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당시 개혁 교회는 목회자 양성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신학부 안에서 가르쳐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이다. 또한 대학을 세우긴 했으나 자격을 갖춘 교수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지원하는 학생들도 별로 없어 결국 신학부는 실패작으로 끝나고 말았다. 나아가 신학부는 종종 칼빈주의 교리를 수호하는 학자들과 반대하는 항론파 학자들 및 학생들 간에 치열한 논쟁의 장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논쟁은 돌트 총회(1618-19)를 통해 겨우 마무리되었다.

둘째로 이 대학은 개혁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으로 설립되었지만 사실 당시 네덜란드 국민의 10%만 개혁 교회에 속해 있었다. 따라서 중요한 인사권에 국가가 개입하

게 되어 진정한 개혁주의적 인재들을 등용하기가 어려웠다. 그 결과 교회와 학생들 그리고 국가가 임명한 이사들과 교수들 간에 긴장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신학생들이 입학하면서 서명했던 맹세들도 다른 학부생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폐기되었으며 개혁주의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 간에도 치열한 분쟁이 지속되다가 결국 후자가 승리하게 되었는데 이는 국가가 이들과 점점 타협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대학 당국이 대학 자신의 영역 주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대학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교회와 국가 정부 간에 충돌이 빈발했다. 이는 결국 대학이 추구해야 할 본연의 사명 추구 및 건강한 발전에 걸림돌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개혁을 추구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였을까? 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대학은 교권이냐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되며 자체의 주권이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레이든 대학이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설립한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교에서 비로소 그 열매를 맺게 된다.

6)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교

불란서 혁명 이후 네덜란드의 대학들은 완전히 정부의 통제하게 들어가 재정, 인사 등 모든 면에서 독립성을 상실했다. 하지만 헌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아직도 재정적인 부분이 공평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카이퍼가 수상이 되면서 다른 국립 대학교들 간에 차별을 없애고 모든 면에서 공평하게 지원하는 법안이 1905년에 통과되었다(Van Riessen, 1997: 44).

당시의 시대정신을 보면 인본주의적 실증주의가 대학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 사상에 의하면 고대 사회는 신앙 또는 신화가 중심적 역할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형이상학 및 사변의 시대로 발전한 후 근대 사회는 실증적인 사실 및 과학의 힘으로 현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진화에 대한 믿음이 더해지면서 종교는 하나의 허구로 치부하게 되었고 과학을 통해 인류는 더욱 진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인본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낳아 개인은 사회에서 절대적 자유를 가져야 하며 국가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중립적 태도가 대학에도 들어와 모든 학문도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국가가 대학을 통제하면서 대학 및 학문도 동일하게 자율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Van Riessen, 1997: 42).

하지만 반 리센은 이러한 관점 자체가 치우친 생각이며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고 분명하게 비판한다. 즉 이 정치적 자유주의 또한 인간의 절대 자유를 믿는 하나의 종교적 전제이며 따라서 인간 이성의 자율성 및 과학적 진리의 우월성에 대한 신앙이야말로 과학과 대학의 중립성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었다는 것이다(Van Riessen, 1997: 41-42).

하지만 당시에 이 사실을 명확하게 꿰뚫어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 결과 1876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레이든 대학교의 신학부는 종교학부로 바뀌게 되었고 개혁주의적 원칙을 견지하던 빌더다이크(W. Bilderdijk), 다 코스타(I. da Costa) 및 흐른 반 프린스터러(G. Groen van Prinsterer) 등은 더 이상 교수로 임명되지 않았다(Van Riessen, 1997: 43). 이 사실을 분명히 보았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1880년 암스테르담에 자유대학교(Vrije Universiteit)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학문과 신앙이 통합된 진정한 기독교 대학을

세워 세속화된 학문의 영역과 대학을 올바로 개혁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모든 학문과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문 및 삶의 분야가 그리스도의 빛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자유대학교 개교 연설에서 그는 이러한 사상을 담은 유명한 영역 주권 이론을 천명하였고 이것이야말로 진정 자유로운 기독교대학의 기초가 됨을 강조했다(Kuyper, 1880). 즉, 대학은 결코 교회나 국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되며 독립적이고도 자체적인 원리에 의해 학문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자유주의화된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카이퍼가 주도한 애통(Doleantie)이라고 하는 교회의 분열도 불가피했으나(최용준, 2012: 229-254)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든 대학이 겪어야 했던 세속화는 막을 수 있었다고 반 리센은 본다(Van Riessen, 1997: 45-46).

7. 반 리센의 기독교 대학관

1) 기독교 대학의 기초

반 리센은 기독교 대학을 논의함에 있어 무엇보다 먼저 그 기초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이것이 대학의 출발점이고, 학문의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그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즉 대학의 기초란 개별 학문 및 전체 학문의 성격 및 의미를 규정하는 원리들이며 가르침과 배움 그리고 나아가 문화와 지혜의 내용까지 결정한다고 그는 말한다(Van Riessen, 1997: 47-48).

나아가 주목할 점은 그가 진정한 기독교 대학이란 원칙적으로 신앙 공동체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이다(Van Riessen, 1997: 49). 즉, 기독교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교직원과 학생들이 사랑으로 하나 된 유기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편견이며 학문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포기하고 교리적이며 독단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반 리센 또한 기독교 대학에서의 학문 활동이 본질적으로 자유로워야 함을 충분히 인정한다. 따라서 학자들은 전통에 대해 비판적일 수 있으며 기존 학설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자신만의 학문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반 리센은 대학이란 학문을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훈련하는 곳이라고 정의하기 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유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대학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면서 자유주의적(liberal)이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씩 변천되어 왔음을 밝힌다. 즉 중세 시대에는 지식의 가치를 보장하려는 시도를 의미하는 단어였으나 근대에 와서는 학문과 대학이 종교와 기타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도 중립성을 가짐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자유주의는 결국 방향성을 잃게 되어 허무주의를 낳을 수밖에 없음을 그는 강조한다(Van Riessen, 1997: 50-54). 따라서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 대학과 교리적이며 독단적으로 보이는 대학 간의 논쟁은 사실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롭고 중립적이라고 하는 주장 또한 종교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대학이 분명 어떤 이념이나 원리들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대 인본주의 및 자유주의적 대학들의 기초를 형성하는 원리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과학과 대학에서 종교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인간에 대한

확신이다.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은 역사적으로 볼 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음을 반 리센은 지적한다. 가령 데카르트는 이것을 이성의 내적인 빛 또는 생득 관념(*innate ideas*) 그리고 방법적 회의라고 말했고 흄은 인상들(*impressions*)의 확실한 기초라고 표현했으며, 후설은 환원적 방법, 딜타이는 역사적 방법, 논리실증주의에서는 검증의 원리, 선험 영역이란 동의어 반복이라는 말로 나타났다는 것이다(Van Riessen, 1997: 31). 이렇게 학문에 대한 인간의 자율성을 신봉하는 세계관에 의해 자유주의적인 대학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과학적 탐구에 의해 발견된 법칙들을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그는 분석한다. 그 결과 보편타당한 진리에 대한 이념이 대학을 이끌고 가는 종교적 기본 동인이 되었고 현대에는 교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 리센은 이러한 관점은 성경적이 아니라 배교적 신앙의 열매이며 현대 대학과 학문을 지배하는 시대정신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한다.

결국 현대 사조는 점점 혼돈과 마비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반 리센은 주장한다. 근대를 강력하게 이끌어 오던 진보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자존감도 상실하고 말았다고 본다. 현대의 대학은 과거처럼 전체적인 진리를 알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 부분적 진리는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진리는 힘이 된다는 것을 신봉하고 있다고 반 리센은 진단한다. 즉 학문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불변하다는 것이다. 즉 종교로부터 독립한 학문만이 진정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지식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자유주의적인 대학과 기독교 대학 간에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그는 본다. 즉 둘 다 참되고 보편적인 지식을 가르친다고 주장하지만 전자는 자신이 또 다른 종교적 전제 위에서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 기독교 대학의 전제

반 리센은 앞서 언급한 시대정신에 비추어볼 때 기독교 대학은 자유주의적 대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비정상적이며 마치 나룻배로 나이가가라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라는 시편 24편 1절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초하여 기독교 대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Van Riessen, 1997: 56). 나아가 네덜란드 최고의 조직 신학자인 바빙크(Herman Bavink)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우리는 불신적인 학문에 대항하여 신앙적 학문 체계를 대학에 도입해야 한다. 과학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시대의 오류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가치가 있고 복음에 의해 변화되어야 한다. 불신적인 학파들은 우리 자녀들을 앗아가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독교적 학문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복음화도 좋고 선교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 자유로운 대학이다.”(Van Riessen, 1997: 56-57).

이런 기독교 대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성경에 그 기초를 놓아야 하며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가 종교적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 리센은 강조한다. 즉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이며 우리의 모든 학문도 주님이 기원이신 동시에 주관자이시고 나아가 완성하시는 분이므로 학문과 대학의 모든 인간적 자율성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대학이 가능하려면 교수와 직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적 교제를 나누어야 하며 그리할 때 진정 배움의 신앙 공동체가 가능하다고 반 리센은 강조한다(Van Riessen, 1997: 63). 왜냐하면 본 논문의 초반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러한 공동체성이야말로 대학의 전제인데 인본주의적 대학에서는 이 공동체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진정한 기독교적 자유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동시에 그분에게 온전히 헌신함으로 인간의 자율성과 같은 우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의미한다. 이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종교적 의미에 대해 응답할 수 있게 해 주며 학문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업에 올바른 관점을 제공하고 신앙과 학문이 대학과 함께 진정한 위치를 차지하는 동시에 창조와 통합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Van Riessen, 1997: 64). 이것이야말로 반 리센이 학문과 신앙의 통합 그리고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요약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기독교 대학은 지성, 영성, 인성적 교양을 갖춘 인격자를 배양하는 곳인데 참된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골 2:3)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양이라고 반 리센은 강조한다(골 3:10). 결국 기독교 대학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며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대학 공동체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신다(Van Riessen, 1997: 64).

3) 영적 대립(Antithesis)

영적 대립이란 용어는 앞서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아브라함 카이퍼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에 화해할 수 없는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반 리센은 카이퍼에 동의하면서 기독교 대학과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 대학 간에 근본적이고도 영적인 대립이 있음을 반복해서 강조한다(Van Riessen, 1997: 65). 이것은 기독교 대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대학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며 이것을 그는 하나의 영적 전쟁으로 묘사하면서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먼저 기존의 익숙한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다. 즉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유주의적인데 기독교 대학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로 기독교 대학 및 학문을 한다는 것에 대해 기독교 학자들 간에도 찬반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 학자들도 무의식적으로 인본주의적 동인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영적 대립이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는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므로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Van Riessen, 1997: 65-66).

그러면서 반 리센은 “비기독교인들의 이론은 전체적으로는 옳지 않으나 단편적 진리는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일부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진리란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에 의해 중세의 종합적 시도로 설립된 대학들이 결국 현대 인

본주의에 의해 정복되었고 따라서 현대 대학들은 허무주의에 귀착하고 말았으며 학문 공동체, 학문의 보편성과 학문합, 지혜와 문화의 관점에 위기를 낳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점에서 대단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본다(Van Riessen, 1997: 66-67).

나아가 반 리센은 다른 두 종류의 영적 대립이 더 존재한다고 본다(Van Riessen, 1997: 68). 먼저 그리스도인들 내에도 기독교 대학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양자 간의 대립을 그는 '제 2의 대립'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반대하는 동기도 깊이 살펴보면 앞서 말한 대로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자율성'을 신봉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진단한다.

또한 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세상을 향하는 마음 간에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반 리센은 이것을 '제 3의 대립'이라고 부른다. 이와 함께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빠질 수 있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대해 경고한다. 즉 가정, 국가, 교육, 결혼 등은 일반 영역에, 종교는 신앙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면서 전자의 경우에는 신앙의 유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오류이다. 하지만 이것은 중세 시대 토마스적인 접근 방식이며 자연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 대신 반 리센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은총론을 지지하며 창조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모든 형태의 인간적 자율성을 배제한다(Van Riessen, 1997: 68-70).

III. 결론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전 세계에는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세워졌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속화되었다. 왜 그런가? 기독교 대학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깊이 있게 고민했던 네덜란드의 기독교 철학자 반 리센의 학문과 신앙 그리고 기독교 대학에 관한 관점을 살펴보았다. 그는 카이퍼와 볼렌호벤 그리고 도여베르트와 같은 기독교 철학자들의 사상을 이어받은 동시에 좀 더 발전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학문과 신앙과의 관계는 도여베르트와 볼렌호벤이 발전시킨 칼빈주의적인 개혁 철학에 근거를 두었고, 기독교 대학에 대한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이 그 근간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자율성에 기반을 두기 시작하면 그 대학은 결국 세속화될 수밖에 없음을 그는 설득력 있게 보여 주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 대학에 대항하여 과연 기독교 대학이 존재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을까? 여기서 반 리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소명과 그것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기독교 대학의 궁극적인 성패는 결국 각 그리스도인의 마음 중심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Van Riessen, 1997: 70) 필자도 동의한다. 그는 기독교 대학이 세속화되는 것은 매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본다. 가령 학문의 한 분야, 대학의 지위나 조직, 연구 능력, 졸업생들의 숫자나 자질 그리고 대학 내에서의 생활 방식 등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

시에 기독교 대학이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되지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는 것 또한 위험하다. 따라서 기독교 학자들은 이러한 두 종류의 유혹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자신이 기독교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엘리트 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대로 기독교 대학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비판이나 심지어 경멸도 능히 감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반 리센은 강조한다(Van Riessen, 1997: 71).

결론적으로 그는 기독교 학자의 ‘순례자’됨을 지적한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기독교 학자들은 그 학문 활동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앞서 가신 그 분을 바라보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거칠고도 좁은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학문 활동에 진지하게 임할 때 기독교 대학은 성공할 수 있다고 그는 확신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대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바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반 리센은 강조한다. 기독교 대학과 학문의 미래는 사실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며 완성하실 분은 만유의 주재가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섰드려야 한다고 그는 결론짓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 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전 12:13)(Van Riessen, 1997: 71-72) 나아가 반 리센의 사상은 아래에 요약된 사도 바울의 비전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엡 4:13)

상업주의 및 학문의 타협 등으로 점점 더 세속화되는 한국의 많은 기독교 대학들도 다시금 반 리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개혁을 통해 그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Blokhuis, P. e.a. (red.) (1981), *Wetenschap, Wijsheid, Filosoferen. Opstellen aangeboden aan Hendrik van Riessen bij zijn afscheid als hoogleraar in de wijsbegeerte aan de Vrije Universiteit te Amsterdam*, Assen: Van Gorcum.
- Dooyeweerd, Herman (1935-36) *Wijsbegeerte der Wetsidee*, Amsterdam: H. J. Paris.
- _____ (1949) *Reformatie en Scholastiek in de Wijsbegeerte*. Franeker: T. Wever.
- _____ (1953-58) *A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 _____ (1980) *In the Twilight of Western Thought: Studies in the Pretended Autonomy of Philosophical Thought*. Nutley, New Jersey: The Craig Press.
- Kuyper, Abraham (1931).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 _____ (1880).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Amsterdam: Kruyt.
- Van Riessen, Hendrik (1949). *Filosofie en Techniek*, Kampen: J. H. Kok.
- _____ (1967). *Mondigheid en de machten*,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 _____ (1970). *Wijsbegeerte*, Kampen: J. H. Kok..
- _____ (1973). *De maatschappij der toekomst*, Franeker: T. Wever. *The Society of the Future*, Philadelphia: P&R, 1957.
- _____ (1974). *Wat is filosoferen?*, afscheidscollege Technische Hogeschool Delft,

Delftse Universitaire Pers.

- _____ (1981). *Hoe is wetenschap mogelijk?* afscheidscollege Vrije Universiteit.
- _____ (1997). *The University and its basis: Studies in Christian Higher Education, number 1*. The ACHEA Press, 1997. Revised and edited by Keith Sewell for The Association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Australia, Inc.
[Http://www.freewebs.com/vanriessen/index.htm](http://www.freewebs.com/vanriessen/index.htm)
- Vlot, Ad en Griffioen, Sander (2000). 'HENDRIK VAN RIESSEN IN MEMORIAM' *Philosophia Reformata* 65. 121 – 125.
- 최용준 (2012). “아브라함 카이퍼의 교회관”, *신앙과 학문*, 2012, 제17권 제2호, 229-254.